

신안군, 향토 음식·꽃 축제 ‘풍성’

15일부터 흑산 홍어축제 개막 옥도 작약·퍼플섬 라벤더 개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신안군에서 음식과 꽃을 주제로 풍성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수산물인 홍어를 주제로 15일 흑산도 예리항에서 ‘제11회 흑산 홍어축제’가 막을 올린다. ‘남도의 진미, 흑산 홍어의 맛과 전통을 만나다’ 주제로 열리는 흑산 홍어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흑산 홍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풍어제 △흑산 홍어 시식회 △삭힌 홍어 먹기 대회 △홍어 감작 경매 등으로 펼쳐진다.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축제장 인근에 위치한 철새전시관, 자산어보 문화관, 고래 공원 관람을 둘러 볼 기회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홍어축제 개최와 함께 흑산 홍어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흑산 홍어 썰기 학교’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를 위한 QR코드 유통 체계도 갖

추고 있다.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2021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도 체결했다. 16일에는 하의도에 딸린 작은 섬 옥도에서 ‘섬 작약 꽃’ 축제, 퍼플섬에서 ‘라벤더 꽃’ 축제가 동시에 선보인다. ‘요정이 머무는 치유의 꽃 정원’을 주제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작약 꽃 축제는 16~18일 옥도에서 열린다. 작약 꽃 축제는 방문객들에게는 바다와 꽃이 어우러지는 섬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내 주변을 정원으로 가꿔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다. 축제가 열리는 옥도는 총면적 22.6ha의 전국 최대 규모의 작약 군락지로 8개 품종, 약 28만본의 작약 꽃이 식재돼 있다. 축제 기간 중 섬에서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최고령 부부를 위한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도 연다. 소원 바램개비 만들기, 화관 만들기, 작약 부케 제작·판매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안군은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반월도

큰골선착장과 옥도선착장 간 여객선도 특별 운영한다. 오는 22~24일 까지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향연, 장산도 화이트정원에서 제1회 ‘2025 섬 사스타데이 꽃 축제’가 개최된다. 섬 사스타데이 꽃 축제는 하얀 사스타데이 꽃밭과 아름다운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방문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화이트정원은 40ha에, 1,310만 송이의 사스타데이가 장산도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다. 태산목 외 31종, 2,400주의 수목을 비롯 주변 은목서길, 소나무 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방문객들은 하얀 꽃들 사이에서 평화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일원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철쭉 분재 전시’가 열리고 있다. 분재정원에 소장중인 105여 점, 60여 종에 달하는 아름다운 철쭉 분재 작품들과 60여 주의 미니정원수가 눈길을 끈다. 붉은색, 분홍색, 흰색 등 다채로운 색상의 철쭉과 섬세한 분재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안군 옥도에서 개최되는 작약꽃 축제. 신안군 제공

영암군, 천사펀드 지원자 6명 선정

영암군이 5월 ‘천사펀드’ 지원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 6명을 선정했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천사펀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영암형 사회적 금융이다. 천사펀드는 영암군과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가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생활 실태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3명에게 첫 대출을 실행했다. 이달에 선정된 지원자는 모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긴급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삼호읍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영미(55·가명) 씨는 중환자실에 있는 노모의 병원비와 대출금 이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천사펀드에 500만원을 신청했고, 지원자로 선정됐다. 김씨 등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영암신용협동

조합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대출을 진행한다. 영암군은 6월 중순 세 번째 지원자를 선정한다. 펀드 신청은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다. 천사펀드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천사펀드는 영암군민이 이웃을 돕는 연대의 상징이다”며 “경제적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사회적 금융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농협, 목포복지재단에 열무김치 기탁

목포농협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1,000만원 상당의 열무김치 400통을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목포시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탁 행사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농협 임직원과 목포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된 한마음봉사 회원들은 재료 구매부터 열무김치 담기까지 함께하며 온기를 전했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회원들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함께 해주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작은 정성이나마 지역사회 나눔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포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안군-고향기부제 답례품 업체 업무협약

신안군은 최근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답례품 공급·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안농협협동조합을 포함한 28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가운데 최근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7일 기준 신안군에 1,555명이 고향사랑기부금 1억 8,900만원을 신안군에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5,7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지역 공급업체를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됐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고향기부금 기탁

노현우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가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노 대표는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너싱엔케어 대표이사로 병행동행 매니저 자격 취득 과정교육,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등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에서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노 대표는 나주시 공산면 출신으로 “고향인 나주의 주민 복지 향상과 나눔·봉사의 가치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기탁 배경을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지난달 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5만198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5만명 방문

완도군은 지난달 5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한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5만198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4,278명이 다녀가며 일일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없이 놀아보세’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도에서 걸으리겠다’에는 1,400여명이 참여해 유채꽃으로 물든 청산도의 봄을 만끽했다. 야간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와 은하수와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보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는 전 회자가 매진됐다. 걷기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슬로길

플로깅’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쓰레기를 수거한 후 친환경 키트를 받았다. 신규 프로그램이었던 구들장 논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떡을 나눠 먹는 ‘구들장 논 방앗간’, ‘범바위 기 팔찌 만들기’,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도 인기를 끌었다. 청산도 주민 관광청을 통해 축제 준비와 운영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주민 주도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 덕분에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청산도를 찾는 분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나주시, 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전문가 토론회

나주시가 광주시, 전남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선 가운데 한국철도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나주시는 오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광주·나주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현안 및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철도 분야 논문 발표와 특별세션, 창의작품전, 전시 부스 등을 운영한다. 특별세션으로 마련한 전문가 토론회에선 주제 발표와 더불어 패널 토론회를 통해 전남지역 광역철도 도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자론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스튜디오갈릴레이 소속 김

태균 박사와 전남지역 다양한 철도과제를 담당했던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토론회는 이준 한국철도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고준호 한양대 교수, 서주환 경기대 교수,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강진동 스튜디오갈릴레이 박사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자들은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무안공항 직결을 위한 삼각선 추진 전략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인구소멸 등 비수도권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광역철도와 삼각선 철도 건설과 같은 국가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철도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